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6면

강북구의회 구본승의원 5분 자유발언

## ‘산분해 간장’ 급식의 간장사용 실태조사 필요

혼합간장 급식에 사용할 경우 어린이 미각발달 심각한 문제 지적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정보건위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은 지난 7월 10일에 개최된 제190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산분해 간장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어

른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어르신 급식소 급식 조리 시 산분해 간장 또는 혼합간장의 사용 여부를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2014년 4월과 7월에 방영된 MBN천기누설-염산으로 만든다는 산분해 간장과 kbs1 소비자 리포트의 관련 사진을 보여 가면서 ‘염산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위해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사용 간장의 분석을 통한 우리아이 먹거리 정책포럼’에서 경기북부·수도권 및 서울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간장 이용 실태분석을 발제한 신한대학교 김영성 교수의 말을 따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46%가 저급간장인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다. 염산분해 간장을 70%이상 섞은 혼합간장을 급식에 사용할 경우 어린이 미각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 차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경로당, 어르신급식소에서 어떤 간장을 사용하는지 실태조사하고 혹시나 산분해간장 또는 혼합간장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동북일보 4면

## 어린이·학생·어르신 급식, 간장 사용 실태조사 필요!

구본승 의원  
(무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정보건위위원장은 7월 10일에 개최된 제190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산분해 간장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어르신 급식소 급식 조리 시 산분해 간장 또는 혼합간장의 사용 여부를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2014년 4월과 7월에 방영된 MBN천기누설-염산으로 만든다는



▲ 구본승 의원

산분해 간장과 kbs1 소비자 리포트의 관련 사진을 보여 가면서 ‘염산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위해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사용 간장의 분석을 통한 우리아이 먹거리 정책포럼’에서 경기북부·수도권 및 서울일부 지역

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간장 이용 실태분석을 발제한 신한대학교 김영성 교수의 말을 따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46%가 저급간장인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다. 염산분해 간장을 70%이상 섞은 혼합간장을 급식에 사용할 경우 어린이 미각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제기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 차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경로당, 어르신급식소에서 어떤 간장을 사용하는지 실태조사하고 혹시나 산분해간장 또는 혼합간장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이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 염산이용 화학분해 '산분해 간장' 건강 위협

구본승 의원, 어린이·학생·어르신 급식의 간장사용 실태조사 필요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미아,송중,번3동)은 7월10일 개최된 제190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산분해 간장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어르신 급식소 급식 조리 시 산분해 간장 또는 혼합간장의 사용 여부를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구 의원은 2014년 4월과 7월에 방영된 MBN천기누설-염산으로 만든다는 산분해 간장과 kbs1 소비자 리포트의 관련 사진을 보여 가면서 '염산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위해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사용 간장의 분석을 통한 우리아이 먹거리 정책포럼'에서 경기북부·수도권 및 서울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간장 이용 실태분석을 받



구본승 의원

제한 신한대 김영성 교수의 말을 따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46%가 저급간장인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다. 염산분해 간장을 70% 이상 섞은 혼합간장을 급식에 사용할 경우 어린이 미각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 차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경로당, 어르신급식소에서 어떤 간장을 사용하는지 실태조사하고 혹시나 산분해간장 또는 혼합간장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요청했다.